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3, 텍스트 비평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성경의 기원과 생산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는데, 주로 우리와 신학자들이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성경의 현상을 어떻게 종합하여 성경을 영감받은 것으로 이해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찾은 더 나은 설명 중 하나는 I. Howard Marshall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인간 수준에서 우리는 성경의 구성, 즉 성경의 구성을 그 뒤에 숨어 있는 다양한 구전 및 문학적 과정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증인으로부터 정보 수집, 서면 출처의 사용, 그러한 정보의 작성 및 편집, 자발적인 편지 작성, 예언 메시지 작성 약속, 다양한 문서 수집 등.

그러나 동시에 신적인 차원에서는 창세기 1-2장의 물 표면에 운행하신 성령이 모든 과정에 활동하셨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성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성령의 활동은 성경이 기록된 인간 활동과 경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지난 세션의 토론에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생산 과정을 계시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산물, 최종 산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석학과 해석에 대한 파생물 중 하나는 오늘 우리가 논의하기 시작할 다양한 방법과 비평, 심지어 해석학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다양한 기여에 대한 연구와 해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모두 성경은 인간의 문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영감의 결과 중 하나는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용어이며, 세부적으로 설명할 생각도 없는 무오성입니다.

그것은 주로 연역적 논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산물인 성경은 오류를 포함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원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지만, 나는 지금 성경의 전달에 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의 과정을 통해 원래 계시하신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실제로 기록한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번역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신구약성서의 본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록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인간

저자들이 쓴 내용과 영감받은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신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송의 첫 번째 단계에는 실제로 우리와 관련된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다음 세션에서 이야기할 번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 구약과 신약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번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션 중 하나에서 해석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 중 하나 또는 극복해야 할 거리 중 하나를 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이 매우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원문 사이에는 언어적 거리가 있습니다. 번역을 통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 언어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간략하게 논의하고 싶은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반드시 참여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해석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학의 기초를 다루기 때문에 해석학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나 본문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이 해석학과 해석에 대한 적절한 기초와 정확한 기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텍스트 비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요 목적은 여러분을 본문 비평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본문 비평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본문 비평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논점을 따라갈 수 있고 그에 관한 토론도 따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본문에 대해 더 큰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당신이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다소 길고 힘든 여정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비평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문 비평이란 다시 말하면 영감으로 시작하여 성경의 전달을 다루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본 사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쓴 원본 문서가 없고, 바울이 썼거나 마태가 쓴 원본이 없고, 룻기나 사무엘상하가 쓴 원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원본 문서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문자 그대로 원본 텍스트의 복사본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시각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텍스트 비평이 나무와 약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줄기는 아마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원본 텍스트일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든 가지에는 새싹과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결과로 나온 사본과 사본이 될 것이며, 비록 나무의 줄기 자체와 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지의 끝과 가장자리와 끝 부분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문 비평의 경우, 원본 사본은 없지만 사본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시, 일반적으로

사본의 사본이며 때로는 수백 년이 분리되어 있지만 신약 성서는 때때로 증거가 약간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깝지만 종종 사본은 원본 사본과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텍스트 비평이 하는 일은 실제로 역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본 사본에서 현재의 사본을 얻을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역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원본 원고의 모습을 최대한 정확하고 적절하게 복구하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역방향으로 작업하면 과정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증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고를 역방향으로 작업하면 원저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가능한 한 가깝게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본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본의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약과 관련하여 꽤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원본 원고부터 시작하여 원본을 복사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사하고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가 완성됨에 따라 어떤 변화, 어떤 오류, 어떤 차이점이 스며들게 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본이 복사되었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때때로 특정 위치에서 서로 다른 사본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모든 사본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서 그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증거 중에서 어느 것이 아마도 바울이 의도한 것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가정은 모든 사본 어딘가에 각 단어, 각 문장, 각

절이 어딘가에 바울이나 이사야 또는 누구든지 쓴 원본 텍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은 가능한 가장 정확한 본문을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텍스트 비평가들은 종종 그것이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원칙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예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모든 재료를 추가하면 최종 제품이 나오는 레시피와는 다릅니다.

많은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는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원고를 복사하는 과정은 인쇄기가 있기 전날이나 지금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여러 사본을 쉽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복사본을 생성하거나 공공 소비를 위한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복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루마리와 그들이 수세기에 걸쳐 기록하는 데 사용했던 모든 도구를 가지고 앉아 손으로 텍스트를 복사하는 다소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종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제 진술의 서문을 써야 합니다. 제 논평의 대부분은 다시 제 전문 분야, 즉 신약성경을 반영합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모두 본문 비평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신약성서가 사실상 다른 어떤 문서보다 증거의 양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더 잘 입증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약성서 본문에 대한 사본 증인은 6,000명에 가깝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만약 서기관이 텍스트를 복사했다면, 그 서기관 옆에 텍스트나 원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과 그의 시트나 파피루스 시트 또는 그가 복사하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의 글쓰기 자료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과정은 서기가 텍스트의 단어 그룹이나 한 줄을 읽은 다음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그 곳에서 원고로 시선을 돌려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쓰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앞뒤로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쓴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으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읽고 있는 것을 복사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을 손으로 복사하려고 시도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때때로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단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단어를 놓칠 수도 있으며, 잠시 후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서기가 그러한 방식으로 복사할 때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원고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필기 도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오류 또는 서로 다른 그가 복사하는 동안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 당신은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고를 복사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사실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또 다른 일, 신약성경 사본을 대량 생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가 나처럼 서서 여러 명의 서기관이 실제로 읽고 있는 내용을 복사하는 사본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서기관이 어떻게,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발음하거나 말하는지, 어쩌면 읽는 사람이 뭔가를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거나 실수로 단어를 놓칠 수도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원고를 복사할 때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신약성서의 사본을 손으로 복사하고 눈으로 직접 복사하는 매우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 어떤 차이와 어떤 오류가 조금씩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신이 허락하시는지, 왜 그분이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다음 인간의 과정을 통해 특정 오류나 특정 차이점이 스며들도록 허용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인간적인 복제 과정을 허용하셨는지 짐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본문 비평의 과정을 통해 생각하는 수준과 자신감은 매우 높으며, 실제로 원저자들이 전달한 내용을 정확하게 회복하고 복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본문, 특히 신약성서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다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성서 저자들과 구약성서 저자들이 쓴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반영임을 매우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 비평과 관련된 몇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의 대부분은 신약성서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미 신약성서에서 신약성경 본문에 관해서는 부의 당혹감이나 증거의 당혹스러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학자는 다양한 신약성서 사본의 경우 자료가 엄청나게 과잉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 6,000개의 서로 다른 원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상 신약성서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한 권의 책 또는 몇 권의 책만 포함하는 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 전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초기의 것 중 일부는 요한복음의 한 장의 일부이거나 요한복음의 한 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고 증거는 완전성, 성격, 품질

측면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함께 일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텍스트를 재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때로는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다른 어떤 역사적 문서보다 신약성서 본문에 관해서 증거가 너무 많거나 당혹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서 저자들이 실제로 쓴 내용을 매우 높은 확률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비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텍스트 비평에 대한 독서 토론을 읽거나 토론할 때, 니모닉 교과서 등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원고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실제로 손으로 쓴 문서이거나 손으로 쓴 두루마리 또는 다양한 종류의 필기 자료를 살펴보겠지만 신약 성서를 입증하는 손으로 쓴 문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때로는 사실상 신약 전체나 그 일부이거나 책의 일부일 수도 있고 신약 문서 중 하나의

장이나 문단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원고입니다. 단순히 손으로 쓴 문서이거나 문서의 일부이거나 단편이거나 신약성서 또는 신약성서의 일부(장이나 책 등)를 입증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원고입니다. 익숙해져야 할 또 다른 용어는 변형이라는 용어입니다.

변형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서로 다른 곳, 즉 한 원고가 다른 원고와 다른 원고를 비교할 때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는 종종 단지 단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철자 차이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단어 그룹이나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때때로 몇 가지 다른 결말이 붙어 있어서 때로는 전체 문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은 단순히 두 개 이상의 사본 간의 차이입니다. 한 원고의 읽기가 다른 원고를 비교할 때, 단어가 다르거나 단어가 누락되었거나 무엇이든 있을 수 있는 것이 변형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든 변형 중에서 본문 비평가들은 여러분이 모든 본문을 비교할 때 그 중 어느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 어느 것이 아마도 바울이나 이사야 또는 누구든지 1장의 저자가 쓴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또는 창세기.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용어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아주 초기의 글쓰기 도구였습니다.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식물의 조각을

사용하여 만든 시트로, 이를 끌어내고 접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쓰거나 기록하는 아주 초기 수단인 시트 또는 페이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과 관련된 두 가지 다른 용어는 스크롤입니다. 두루마리는 역시 매우 초기 형태의 쓰기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장의 파피루스 시트를 가져다가 기본적으로 함께 붙이면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루마리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코덱스입니다.

코덱스가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코덱스는 책을 하나로 묶는 아주 초기 형태와 마찬가지로 시트를 책 형태로 묶은 곳이었습니다. 시트를 모두 붙이고 말아 두는 대신, 책 형태로 묶었습니다.

그것은 코덱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원고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 다른 용어.

아마도 분명하지만 여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단순히 신약성서 본문이나 구약성서 본문을 복사하고 복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몇 가지 다른 단어는 필기 경향입니다.

테트라 비평에 대한 토론에서 이 단어를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서기 경향은 서기가 행하는 일의 유형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기관이

문서를 기록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은 문서를 읽고 페이지로 전송하는 동안 방금 읽은 내용을 마음 속에 유지하고 복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 특정 경향은 그 텍스트가 다시 서기관이 무언가를 잊어버릴 수 있거나 의도적으로 서기관이 무언가를 조화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관이 복음서 중 하나의 내용을 읽고 있는데 자신의 내용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그 전주에 마태복음을 복사했는데 지금은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화시켜 소리가 나도록 만들려고 노력할 수도 있으며, 두 복음서를 서로 비슷하게 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어요. 서기가 복사할 때나 읽은 텍스트를 듣고 녹음할 때 서기가 할 수 있는 특정한 경향, 특정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유지하고 주요 용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unse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원고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봉인되지 않은 원고는 기본적으로, 이는 원고의 종류를 가리키는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코덱스와 달리 글쓰기 스타일을 더 많이 의미하며 이는 글쓰기 스타일을 더 의미합니다.

개봉 원고는 기본적으로 모두 대문자로 작성된 원고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신약성경 문서의 대부분이 아마도 개봉된 스크립트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즉, 작가는 그리스어로 모두 대문자로 썼을 것이고 단어 사이에는 공백이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단어 사이에 공백을 두는 오늘날 대부분의 언어와는 달리, 봉인되지 않은 원고에는 단어 사이에 공백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장은 함께 실행되었을 것이고 구두점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개봉한 원고입니다.

훨씬 후에, 몇 세기가 지난 후, 많은 사본이 소위 미미하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지막 용어입니다. 소문자.

그것은 필기체 형태의 글쓰기에 가까웠고, 나중에는 단어가 서로 구별되고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더 중요한 용어 중 일부입니다. 원고, 변종, 파피루스, 두루마리, 코덱스, 필사자, 필사자 성향, 그리고 봉인 해제 및 작은 유형의 원고.

이러한 용어는 본문 비평에 대한 토론을 읽거나 토론을 들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 비평가들이 신약과 구약의 저자들이 만들었을 원본 사본의 형태를 최대한 정확하고 최대한 가깝게 재구성하기 위해 작업하는 증거 유형을 설명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먼저, 신약성서에 관해서는 당황스러운 증거가 있습니다.

둘째,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본문 비평에 관해 세 번째로 말해야 할 점은 사본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저자들이 작업하는 사본의 증거는 매우 다른 종류입니다.

때로는 사본 증거의 대부분이 신약성서의 실제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는 봉인되지 않은 사본이든, 다시 단어 사이에 구분이 없는 대문자이든, 나중에 더 많은 필기체 문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사본 증거 중 일부는 신약성경 본문의 그리스어 실제 사본 형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때때로 그것들이 매우 단편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단지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의 단편일 뿐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책 전체이거나 책의 일부이거나 여러 권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사실상 신약성서 전체이지만, 우리의 원고 중 상당수는 신약성서 본문의 실제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부들, 특히 3~4세기부터는 초대교회의 교부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신약성경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예가 자주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인용합니다. 그리고 신약성서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은 종종 그들이 어떤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신약성서가 사용 가능했는지 알려줍니다. 즉, 교부들이 신약성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문은

신약성서와 그 표현 및 내용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성서의 다양한 버전이나 초기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사본이 지리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다른 언어인 신약성경을 사용하는 다른 민족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 따라 우리는 시리아어나 라틴어와 같은 언어로 된 아주 초기의 신약성경 번역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

그리고 그러한 번역은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떤 형태의 신약성서 본문을 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비평가들은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이나 마태가 원고의 원본 형식으로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증거를 고려합니다. 원본 텍스트에서.

네 번째로 말해야 할 것은 모든 증거,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와 사본이 신약성서 본문 비평가들이 그것을 다른 계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텍스트, 텍스트 비평가, 또 다른 용어인 텍스트 비평가 사이의 유사성에 기초한 이 모든 증거의 뒤죽박죽을 갖는 대신, 텍스트 비평에 참여하고 원본 텍스트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언급하십시오. 그들은 이 모든 사본과 이 모든 증거를 특정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계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

공통의 상위 또는 공통 소스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원고. 예를 들어, 나는 본문 비평가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계열 중 두 가지를 언급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원고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가족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사된 사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본 그룹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사본 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열의 원고는 품질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변경 사항과 조화가 덜하고 텍스트를 매끄럽게 하려는 시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종종 볼 수 있고, 오래된 독서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본문 비평가들은 알렉산드리아 활자본이 원본 신약성경 본문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에 있어 품질이 매우 높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가족은 서부 사본(Western Manuscript)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간략하게 논의하고 싶은 세 번째 유형은 비잔틴입니다.

대부분의 신약성경 그리스어 사본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훨씬 늦었습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 가문보다 훨씬 늦게 발생한 후기 사본 가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가 이 사본 계열과 관련하여 글을 쓰는 경우, 서기가 텍스트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부드럽게 하거나 다른 텍스트나 다른 것과 조화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잔틴 사본 계열은 때때로 알렉산드리아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본에 신약성서 본문의 원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여전히 제공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증거를 세어 보거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그런 내용이 있거나 50개의 사본에 이 본문이 있고 단지 3~4개의 사본에만 이 내용이 있다면 50개 사본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비평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본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모든 증거를 취하여 저울질하여 바울, 누가, 마태 또는 구약의 경우 이사야나 시편 기자가 무엇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글을 썼을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모든 사본 중에서 학자들은 그것들을 다른 관련과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유형의 이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본은 모두 공통된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다섯 번째 개념은 본문 비평가들이 신약 본문을 재구성할 때 다루는 두 가지 유형의 증거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 하나는 외부 증거로

알려져 있고 다른 하나는 내부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 증거는 이 모든 사본의 날짜와 그것이 어느 가문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단지 알렉산드리아나 비잔틴 또는 서양을 살펴보고 이 사본들이 어느 가문에 속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이 원고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아주 이른가요? 훨씬 늦었나요? 한 사람은 빠르며 한 사람은 늦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려하는 증거의 일부일뿐입니다. 지리적 분포, 한 원고의 특정 읽기가 지리적으로 널리 퍼질 수 있는 변형 읽기와 달리 한 위치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여부입니다.

여러 지리적 위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필사 경향, 필사자가 복사할 때 또는 읽은 텍스트를 들을 때 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 증거라고 불리는 것이며 다시 결정하려고 할 때 모두 고려됩니다. 이전 신약성서 저자가 무엇을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다른 하나는 내부 증거라고 합니다. 내부 증거는 텍스트 자체에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그것이 작가의 스타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입니까? 그의 문법과 그가 사용한 단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신학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따라서 문서 자체의 더 넓은 맥락을 살펴보면, 특히 바울의 경우 그의 모든 서신을 살펴보고 그의 신학적 경향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다시 내부적으로 사용하여, 즉 텍스트 자체의 증거를 사용하여 저자, 텍스트 비평가가 원본 텍스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립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시 모든 사본을 보고 그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올바른 사본은 바울의 스타일과 어휘, 편지에 있는 그의 신학과 그가 쓴 편지의 다른 부분에 일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신학, 그리고 다른 곳에서 쓴 그의 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읽기를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내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 텍스트 비평가는 다른 것보다 둘 중 하나를 선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판독이 올바른지 결정할 때 내부 증거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일부는 외부 증거에 더 중점을 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두 가지 모두를 평가하고 가능한 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가족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본문 비평가들은 알렉산드리아 가족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계보 관계에 따라 그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부 본문 비평가들은 알렉산드리아 활자 사본에서 발견된 모든 본문이 아마도 원본일 것이므로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우선권을 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텍스트 비평가들이 비잔틴 사본을 선호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비잔틴 사본 계열에서 발견된 읽기가 선호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되는 텍스트 비평의 한 가지 방법은 절충적 방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절충주의, 합리적인 절충주의는 그것을 가리키는 멋진 용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증거를 고려하고 무게를 두고 어느 하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 외부, 원고 날짜, 원고가 속한 가족 등 모든 증거를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본을 살펴보면 한 구절에 사본에 몇 가지 변형이 있으며 모든 증거, 날짜, 분포, 비잔틴인지 알렉산드리아인지, 필사 경향을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의 스타일, 어휘, 문법 등. 가장 합리적인 시도를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원저자가 쓴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합리적인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신약성서에는 대부분의 신약성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통 본문으로 등장한 두 개의 그리스어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연합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 UBS인데, 제4판이 막 나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부분의 사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계속 편집되고 업데이트되며 때로는 텍스트 문제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원본 원고의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재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본 중 하나는 제4판인 연합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입니다. 다른 하나는 Nestle-Aland로 알려진 것으로, Nestle과 Aland라는 두 이름은 주요 편집자를 반영합니다.

27판인 네슬레-알란드 본문은 매우 일반적인 두 가지 본문이며, 오늘날 본문 비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장 두드러지고 일반적인 신약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원고 증거를 취하여 모든 가능성 등을 평가해 보십시오. 이것은 신약성서 저자들이 실제로 쓴 내용을 표현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가장 밀접하게 반영하는 텍스트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할 또 다른 마지막 문제는 서기가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대한 동기입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서기관은 자신이 복사할 원고를 갖고 있고 복사하는 동안 한 줄을 읽어야 합니다. 또는 서기관이 얼마나 많이 읽었든 몇 단어 또는 한 줄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를 옮겨 빈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또는 우리는 서기가 누군가가 텍스트를 읽는 것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진행됨에 따라 특정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기가 작성하는 원고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백업하자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중 일부는 우연이거나 도입된 이러한 변형이나 실수 중 일부는 우연입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유형은 의도적입니다. 서기관은 의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원고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원고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분명한 것을 발견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일반적인 의도적 변경은 조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기관, 특히 복음서의 경우 서기관은 한 복음을 다른 복음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관이 복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매우 두드러진 예입니다.

서기관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필사하고 있고 아마도 그 서기관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버전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면, 누가복음을 필사하는 서기관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들리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Matthew처럼요.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같은 소리를 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불일치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은 의도적으로 특히 복음서와 특정 텍스트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기관이 방금 마태복음을 복사했거나 마태복음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복사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 둘을 서로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기관이고, 두 번째는 서기관이 거칠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일치하는 것을 개선하거나 매끄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기관은 본문을 읽을 수도 있고, 특히 신학적으로, 본문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이 서기관의 신학적 신념과 충돌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은 정확한 신학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그것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변경의 예입니다. 여기서도 결과는 서기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텍스트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조화시키고, 그가 보기에 같등이나 불일치를 제거하고, 교회의 신학과 표준적인 신학적 신념에 부합하도록 만들고, 불일치를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도적인 변경은 텍스트를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서기관이 의도하지 않게 도입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원고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는 우연히 도입된 변경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기가 원고를 읽은 다음 이를 다른 원고에 기록하기 위해 전송하거나 서기가 읽은 텍스트를 듣고 녹음할 때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관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책을 읽고 있다면, 특히 피곤할 때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피곤해서 한 문단을 읽고 또 읽다 보면, 같은 줄을 다시 읽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원고를 읽고 녹음할 때 종종 피곤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원고에서 다른 원고로 이동할 때 한 줄을 읽고 기록하고 돌아갈 때 다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줄을 다시 녹음하므로 두 번째로 녹음하세요.

또는 실수로 한두 줄을 건너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읽고 한 줄을 녹음하다가 다시 돌아갈 때 같은 지점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한 줄을 건너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줄이 그 앞 줄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복사 중인 원고와 원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실수로 한 줄을 건너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작하고 있는 새로운 원고.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특정 변경 사항이 이제 서기가 작성한 새 원고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당 원고를 사용하고 복사하면 후속 원고에서도 동일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와 나무가 뺏어나감에 따라 서기관이 저지르는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변경 사항을 다른 사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또 다른 변동 원인은 청각, 청각 오류를 통한 것입니다. 즉, 서기관으로서 또는 누군가가 원고를 다시 읽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무언가를 명확하게 발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그리스어가 초기 세기, 즉 1세기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발전했고, 이런 일이 이미 1세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특정 모음, 심지어 모음의 조합도 비슷하게 발음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어도 동일하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기관이 소리를 듣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 이상의 글자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는 어떤 글자를 쓸 것입니까? 예를 들어, 영어에서 누군가가 Bored라는 단어를 말한다면 그것은 BORED인가요? 내가 너무 지루해서? 아니면 보드인가요? 보드와 같은.

아니면 보드라는 단어 자체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단어가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상황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읽을 때, 그것은 동일하게 발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어에서는 특히 모음이 비슷하게 발음되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서기관이 읽은 내용을 듣고 읽을 때 철자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가 방금 들은 내용을 철자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손을 들고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어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본의 일부 변경 사항, 사본 간의 차이점 중 일부는 특정 그리스어 단어의 다른 소리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눈에 보이는 공중에서 나올 수 있는 변형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에 대한 영어 예입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지 몇 글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는 단어의 의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두 글자를 뒤집어 영어 단어 dog과 God의 차이점을 살펴보세요. 그것은 그 단어의 의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가는 한 단어에서 다른 단어로 이동하면서 우연히 한 단어를 읽다가 두 글자를 뒤집어 매우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기관들은 피곤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시력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나쁜 태도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복사하는 능력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고를 복사할 때 시력의 오류로 인해 단어를 쓰거나 글자를 거꾸로 쓰거나 복사하는 원고에 변형이나 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가끔씩인데 텍스트 평론가가 다루기가 조금 더 쉽고, 때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백에 있는 서기관들이 메모를 하는 것이 때때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때로는 텍스트에 대해 다소 진지한 메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차갑다거나 잉크가 떨어졌다거나 오늘 아내가 토스트를 태웠다거나 여백에 이와 비슷한 것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기가 해당 텍스트를 갖고 복사할 때 실수로 해당 메모를 텍스트 오른쪽 여백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본문 중간에 '내 손이 얼어붙는다'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의 서기가 썼을 수도 있는 종류의 메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기관이 여백에 작은 표기를 쓸 때,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해당 원고를 복사하면 여백에 있는 작은 메모가 실제로 텍스트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본문 비평가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아마도 서기관이 직접 삽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기 경향의 일부입니다. 서기관이 할 수 있는 일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텍스트 평론가는 거꾸로 작업하고 이 모든 변형 중에서 서기관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의도한 변경을 기반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는지 말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울이나 누가, 마태가 쓴 것이 무엇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비평에 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예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텍스트 비평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무엇을, 어떤 원칙이나 표준을 사용합니까? 어떤 원칙이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사람이 읽은 모든 내용을 비교할 때 다시 한번, 만약 본문 평론가가 있다면 마가복음 1장과 1절, 그리고 모든 사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이러한 차이점 중 어느 것이 Mark가 쓴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구절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두 개만 있을 때도 있고, 한 명 이상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분명할 때도 있고, 결정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이 한 절을 작업하고 있고 모든 사본 중에 몇 가지 변종과 차이점이 있다면, 본문 비평가는 그 중 어느 것이 마가가 쓴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차이점 중에서 가장 어렵거나 가장 어려운 읽기가 아마도 가장 정확한 읽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이 개선 사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본문에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본문을 매끄럽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원칙일 뿐이며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기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럴듯하게도, 눈에 보이는 오류로 인해, 또는 한 줄을 건너뛰기 때문에, 서기가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가 더 어려워지고, 이 경우 가장 어려운 읽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기관은 텍스트를 개선하고, 그가 인식하는 불일치, 신학적 문제 또는 텍스트의 거칠기를 부드럽게 처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서기관은 그것을 더 매끄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본문 비평가들은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할 때 모든 읽기 중 더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읽기가 아마도 올바른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짧은 독서입니다. 두 번째 일반 원칙은 가장 짧은 내용이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변형과 차이점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 아마도 올바른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이유는 서기가 텍스트를 확장하고 매끄럽게 다듬고 개선하고 추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이 텍스트를 복사할 때 실수로 한 줄을 건너뛰어 더 짧은 텍스트를 생성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즉, 이것은 어렵고 빠른 규칙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준수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서기관이 확장하고 정교하고 매끄럽게 읽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짧은 읽기가 올바른 읽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읽기의 사본이 있을 때 다른 읽기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읽기가 아마도 올바른 것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를 기반으로 다른 모든 판독값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도 올바른 판독값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서기가 두 개 이상의 원고를 가지고 있거나 두 개 이상의 읽기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모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때로는 여러 개의 읽기로 된 원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여러 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느 것이 올바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두 개 이상의 읽기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에 모두 넣고 하나로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본 중 하나에 의해 이러한 읽기 중 일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변형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중 하나를 기반으로 모든 변형을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가 다른 판독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면 아마도 올바른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텍스트 평론가가 텍스트를 올바르게 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원칙 중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다시 말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단지 단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가복음과 다른 모든 사본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것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인상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 원고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여기저기서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만 때로는 그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아주 쉬운 한 가지 예는 누가복음 1장과 1장부터 4장, 즉 누가의 프롤로그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여, 데오빌로여 당신으로 하여금 이 일의 확실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중에 이 단어를 추가한 사본이 두 개 있습니다. 누가가 말할 때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 같았고 그들은 그 단어를

추가했으며 성령께도 추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본 중에서, 그리고 성령에게 이렇게 하는 사본은 몇 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두 개의 후기 사본이고 이를 증명하는 다른 사본이 없고 사도행전이 이 문구를 다른 곳에 포함하고 있으며 서기관들이 누가가 말하는 것을 반영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리고 어쩌면 본문에 신성한 승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가가 한 일이 아니라 아마도 성령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간단히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나에게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3절입니다. 요한의 새 예루살렘 환상에서 요한은 실제로 구약의 언약 공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든지 사람과 함께 있느니라 그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일부를 떠올려 보면 그것이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 언약의 공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은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및 여러 구약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에스겔서 37장의 버전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언약 공식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두 종류의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단수형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본에는 복수형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일종의 과장된 영어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일부 사본에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백성의 복수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올바른 읽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John은 무엇을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외부 증거와 마찬가지로 사본 자체를 보면 사본의 날짜와 사본 수, 비잔틴과 알렉산드리아 등을 볼 때 특정 결론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증거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서기관이 사람의 복수형을 쓸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서기관이 사람의 단수형을 쓸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증거는 요한이 구약성경 본문을 자주 보편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하는 구약성서의 본문. 이제 요한은 이방인을 포함하여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방언 등과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수 민족이라는 구약의 공식을 바꾸었고,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의 민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수 민족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족속과 언어와 방언과 나라가 이제는 복수형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리고 아마도 서기관은 단수 민족 안에 있는 구약의 언약 공식을 알고 있는 서기관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단수 민족이 있는 에스겔과 레위기 26장의 구약의 언약 공식과 같게 들리고 일치하도록 그것을 다시 바꾸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원래 사람의 복수형을 썼고, 나중에 어딘가에 있는 서기관이 구약의 공식과 더 비슷하게 들리도록 단수형으로 다시 바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 흥미로운 예는 로마서 5장과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과 1절에서 바울은 처음 네 장에서 주장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의미에 대한 일종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부분을 시작합니다. 장. 그러므로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참된 것과 의롭게 됨으로 인해 우리가 실제로 소유한 것에 대한 진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일부 사본에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야 합니다. 권고나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일부 사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암시적인 진술과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다른 사본에는 우리가 평화를 가져야 하거나 평화를 가지도록 해야 하거나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나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의 차이를 만듭니다.

바울이 쓴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주장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이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차이, 차이는 그리스어로 한 글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또는 그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to have 또는 우리가 영어로 가지고 있다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이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 진술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 가지 방식으로 철자됩니다. 아니면 명령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야 했습니다. 차이점은 동일하게 발음될 수 있는 문자 하나입니다.

서기관이 거기 앉아 낭독되는 텍스트를 듣고 있다면, 때로는 글자가 같은 방식으로 발음될 때, 그는 무엇을 쓸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동사가 한 글자만 바뀌어도 쓰여질 수 있고 두 글자가 모두 동일하게 발음되었을 수 있다는 예입니다. 다들 그거 보시나요? 저자가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중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코멘이고 다른 하나는 에코멘일 것입니다. 차이점은 단지 한 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komen은 우리가 주장을 가지고 있는 Ekomen과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하거나 가지게 놔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ah와 oh가 똑같이 oh로 발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책을 읽고 에코멘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쓸 것인가, 아니면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술이나 주장을 쓸 것인가? 내가 읽은 대부분의 주석서와 로마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즉 주장이나 진술이 정확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1과 같이 한 글자만 차이가 나는 사본이 있을 때 본문 비평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두 글자가 동일하게 발음되었기 때문에 일부 서기관들이 한 글자 또는 다른 글자를 써서 텍스트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글자를 쓰십시오. 마지막 예는 길이에 관한 한 훨씬 더 중요한 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부분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은 단지 두 단어로 이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두 개는 단지 철자일 뿐이고, 문자 그대로 다른 두 개는 한 글자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한 글자의 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를 풀고 싶지도 않고 해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에서도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여 제가 본 거의 모든 영어 번역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원고를 보면 이런 메모가 있을 것입니다. NIV 본문을 보고 있는데, 최초의 사본과 일부 고대 증인들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마가복음 16장은 절 끝에서 20절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본 모든 영어 번역에는 약간의 주석이 있습니다. 또는 일부 초기 사본과 다른 증인이 9절부터 16절까지가 없다고

말하는 각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일부 영어 성경에는 훨씬 더 짧은 또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있으며 비슷한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메모.

이 구절이나 이 결말은 때때로 각주에 있을 것이고, 다시 그들은 그것이 이전이나 고대 증인들에게는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Mark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버전에는 마가복음 16장이 8절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마가에는 9절부터 20절까지와 같은 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9절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사 일곱 귀신을 쫓아내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라. 그녀는 가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긴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영어 성경에는 일부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이 결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마가가 어디에서 끝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났나요? 그것은 많은 사본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끝 부분이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끝이다.

다른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고 싶지 않지만, 마가가 실제로 8절에서 끝나려고 의도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읽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자들은 떨고 당황하여 나가서 무덤에서 도망하느니라.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6장 8절의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복음을 끝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자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누구에게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요? 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고대 서기관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9절부터 20절까지는 복음의 적절한 결말을 구성하려는 고대 서기관의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본이 그 점을 지적하고 9절부터 20절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실제로 8절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신학적 이유와 상황적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8절을 썼는데 마가 자신이 8절 이후에 더 많이 썼는데 원고가 분실되거나 잘리거나 불태워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잃어버렸고 나중에 서기관에 8절, 9절부터 20절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8절에서 끝나려고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마가복음이 16, 8절로 끝나는 원고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은 그것이 복음을 끝내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마태와 누가, 심지어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9절부터 20절까지의 일부 구절은 유사하며, 특히 15절과 16절은 대위임령 본문인 마태복음 28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은 마가복음에 적절한 결말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일부 사본에 나오지만 마가가 직접 쓴 원래 결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본문비평, 본문비평은 가능한 외부적, 내부적 증거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본의 날짜, 그것이 속한 가문, 사본의 분포, 특정 사본이 한 곳에 위치하거나 그 유래가 있는지 여부, 또는 읽기가 지리적으로 여러 위치에 걸쳐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및 더 많이 알려졌죠.

원고의 연대, 필사경향 등을 살펴본 후 내부적으로 저자의 문체, 어휘, 문법 등을 살펴보거나, 저자가 바울 등 다른 문서를 썼다면 그의 신학과 문체를 살펴보는 것이 더 폭넓다. 모든 정보를 사용하고 모든 원고 증거에서 역방향으로 작업하고 모든 기준과 정보를 사용하여 역방향으로 작업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고 가깝게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한 가깝고 정확하게 재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마가, 마태, 로마서, 예레미야, 이사야, 창세기의 저자는 무엇을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줄기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줄기도 없고, 원본 원고도 없으며, 가지만 있고 대개 가지 끝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작업하여 원본 원고가 모든 사본 중에서 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복사 과정에서 차이점과 변화가 들어오고, 본문 비평은 증거에서 다음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원래 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내 생각으로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문 비평적 차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무엇인지 매우 높은 확률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원래 글을 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고와 증거를 볼 때, 본문 비평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쓴 내용을 높은 확률로 다시 작업하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정확한 해석의 대상이 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달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우리는 해석학을 더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원본 생산과 기원인 영감으로부터, 본문이 복사되어 이용 가능하게 된 모든 증거를 통해, 정확한 반영인 구약성경 본문을 본문 비평을 통해 작업하고 재구성하는 전달 과정 영감을 받은 원본 텍스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송의 두 번째 단계인 구약성서 본문의 재구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제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번역되고, 번역을 통해 해당 본문을 다양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해석학과 해석을 위한 적절한 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대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번역, 번역 과정, 무엇이 좋은 번역인지, 다양한 번역 유형은 무엇인지, 해석학과 해석에서 번역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번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의 해석학적 노력에 활용하십시오.